

노인단독가구의 부엌공간 실태와 개조에 관한 연구

Current Situations and Modifications of Kitchen Space

by Elderly-Headed Households

권오정*
Kwon, Oh-Jung

김미희**
Km, Mi-Hee

하해화***
Ha, Hae-Hwa

Abstract

Kitchen space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the elderly. Modifications of kitchen space for improving safety and independence for older residents are very important factor for aging in 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s and modifications of kitchen space by elderly-headed households. The sample included 108 respondents over the age 65 who consisted of elderly-couple or single person household with homeownership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present incidence and recognition of future need in kitchen modifications were identified. Changes made in kitchen space tended to be nonstructural or relatively inexpensive i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deas for improving current physical problems of kitchen space to support safe and independent daily living of older residents.

Keywords : Elderly-headed Household, Kitchen Space, Modification of Kitchen Space, Residential Modification

주요어 : 노인단독가구, 부엌공간, 부엌개조, 주택개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 중에 두드러진 현상은 노인 인구증가율을 앞서고 있는 노인단독가구¹⁾의 증가 속도이다.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1975년에는 7.0%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36.6%, 2000년에는 44.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인적부양체계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해야하는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노인부양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율은 높으나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택유형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0). 전체 노인가구의 67.7%가 단독주택 거주자

인데 이러한 노인거주주택의 질적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따라 주거수준을 볼 때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부엌시설기준 미달가구는 18.5%. 화장실 시설기준 미달 가구는 46.3%, 욕실 시설 기준 미달가구는 32.5%로 이는 전체가구의 12.9%, 29.8%, 22.3%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통계청, 2000).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주거수준을 갖고 있는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노후에 대비하여 좀더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들의 신체적, 생활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조하는 것은 노인의 주거생활 지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이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다른 공간에 비해 개조²⁾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인 부엌(권오정, 1996; 권오정 외, 2001; 김대년, 1997; 김태일, 1998)을 대상으로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부엌 공간실태와 개조실태, 만족도 및 요

1) 노인단독가구라 함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부부(1인 이상이 65세 이상)로만 독립된 가구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2) 본 연구에서 개조(modification)라 함은 노인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수월하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로서 주택의 증개축이나 구조변경, 마감재 교체, 보조기구 및 설비의 설치가 포함되고 이와 함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용도의 복지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및 교체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희원(주저자),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정희원(교신저자),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남대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소장

***정희원, 건국대 가정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05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한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구를 파악하여 노인가구의 안전성, 자립성, 쾌적성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엌³⁾을 개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도시계획상 분류 기준에 따라 5개 권역(강동, 강서, 서북, 동북, 도심)으로 나누고 각각의 권역에서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1-2개구를 선정한 후 선정된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 중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주택 소유자⁴⁾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권오정, 1997; 권오정 외, 2001)를 토대로 개발된 조사도구를 검토하기 위해 노인단독가구 중 3가구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조사도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3차례에 걸쳐 훈련된 조사원 2인이 1조가 되어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엌을 실측 조사하는 방법도 병행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4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두 달간 실시되었고 최종적으로 108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인 구조적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문항은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 생활비, 주 수입원, 가구유형), 건강특성(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질병), 신체치수, 주택관련 특성(주거유형, 주택규모, 거주기간, 현 주택에서의 향후 거주여부, 현 주택 계속 거주이유, 하루 중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개조관련 특성(현 주택에서의 향후 노후생활 예측 및 대처방안, 현 주택의 개조 의사 및 이유, 현 주택의 개조여부, 개조 후 만족도, 개조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엌의 물리적 환경 실태(단차, 출입문, 마감처리, 설비, 수납 및 작업대,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조사원의 실측을 통해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χ^2 검증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3) 본 연구에서 부엌이라 함은 조리, 설거지 등의 식생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식사공간이 부엌의 일부로 통합된 형태와 식탁과는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4) 조사대상을 자가 주택 소유자로 한정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상황 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제약조건이 많아 실제로 주택개조를 한 경험도 저조하고 개조 요구를 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일반가구에 비해 노인가구는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아 노인인구 중 77.6%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형성하고 있는 단독가구유형에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각 가구별로 조사에 응한 경우를 보면 여자(72.2%)가 더 많았다. 연령은 65세부터 80세까지 비교적 고루 분포하면서 평균 연령은 73.3세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12.1%에 그쳤고 정규교육을 받은 비율이 87.9%로 이중 대학교 이상의 교육은 받은 고학력자의 비율도 7.1%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노인의 정규교육 받은 비율인 56.7%(통계청, 2000)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소득 면에서는 전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91만원 이었고 이러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 수입원은 자녀의 보조(27.7%), 연금/저축(24.8%), 부동산 운영/임대수입(25.7%) 순으로 나타나 1/4이상의 조사대상자가 자녀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건강특성 및 인체치수

조사대상자의 건강특성은 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주관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08

변인		빈도(%)
가구유형	1인가구	54(50.0)
	부부가구	54(50.0)
	소 계	108(100)
성 별	남	30(27.8)
	여	78(72.2)
	소 계	108(100.0)
연 령 (전체평균 73.3세)	65세-70세 미만	31(29.2)
	70세-75세 미만	32(30.2)
	75세-80세 미만	27(25.5)
	80세 이상	16(15.1)
	소 계	106(100.0)
학 령	무학	12(12.1)
	초등학교 졸업	48(48.4)
	중학교 졸업	16(16.2)
	고등학교 졸업	16(16.2)
	대학교 이상 졸업	7(7.1)
	소 계	99(100.0)
가구 별 한달 생활비 (평균 91만원)	30만원 이하	31(28.9)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2(20.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33(30.8)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13(12.1)
	200만원 초과	8(7.5)
	소 계	107(100.0)
주 수입원	자녀 보조	28(27.7)
	연금/저축	25(24.8)
	부동산 운영/임대수입	26(25.7)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9(8.9)
	기타	13(12.9)
	소 계	101(100)

표 2. 조사대상자의 건강특성 N=108

변인		빈도(%)
주관적건강상태	건강하다	45(42.8)
	건강이 나쁘다	60(57.2)
	소계	105(100.0)
노인질병*	고혈압	63(57.8)
	관절염	53(48.6)
	만성요통	32(29.4)
	당뇨	25(22.9)
	소화기계 만성질환	17(15.6)
	골다공증	15(13.8)
	백내장	16(14.7)
	단순기억력장애	6(5.5)
	심장병	6(5.5)
	자궁질병	6(5.5)

*복수응답

적인 건강상태와 현재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조사하였는데(표 2 참조), 조사대상 노인의 절반 이상(57.2%)이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앓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은 고혈압(57.8%), 관절염(48.6%), 만성요통(29.4%), 당뇨(22.9%) 의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요통과 같은 질병은 앓고 일어나서 기, 걷기, 계단오르내리기, 물건을 잡거나 기구를 작동하기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질병에 대응한 주택의 개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의 인체치수를 파악하는 것은 주거공간의 적정성을 논의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체치수를 파악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남성 응답자들은 평균 신장 161.1 cm, 여성 응답자는 평균 신장 151.1 cm이었다. 이러한 평균 신장은 우리나라 20대 성인의 평균 신장과 비교해 볼 때 남자는 12.1 cm, 여자는 8.9 cm나 작았다(산자부 기술표준원, 2005).

3) 조사대상자의 주거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주거관련 특성을 살펴보면(표 4 참조), 조사대상 노인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9.3%) 그 다음이 다세대주택(28.0%), 아파트(16.8%), 연립주택·빌라(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균 규모는 24.0평이었다. 이를 평형대별로 구분해보면 가장 많은 41.5%가 20평 미만의 주택에, 31.1%가 20-30평 미만의 주택에 살고 있어 약3/4 정도가 소형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표 3. 조사대상자의 인체치수

항목	남자(n = 28)	여자(n = 76)
평균 신장	161.1 cm	151.1 cm
평균 눈높이	148.2 cm	139.7 cm
평균 굽힌 팔꿈치높이	100.5 cm	93.1 cm

표 4. 조사대상자의 주거관련특성 N=108

변인		빈도(%)
주택유형	단독주택	42(39.3)
	다세대주택	30(28.0)
	아파트	18(16.8)
	연립주택(빌라)	15(14.0)
	기타	2(1.9)
주택규모* (평균:24.0평)	소계	107(100.0)
	20평 미만	44(41.5)
	20평-30평	33(31.1)
	30평 이상	29(27.4)
거주기간 (평균:약19.9년)	소계	106(100.0)
	5년 미만	22(20.6)
	5년-10년 미만	16(15.0)
	10년-15년 미만	10(9.3)
	15-20년 미만	4(3.7)
	20-25년 미만	11(10.3)
	25년-30년 미만	10(9.3)
	30년 이상	34(31.8)
현주택에 향후 거주여부	소계	107(100.0)
	예	96(88.9)
	아니오	12(11.1)
현 주택에 계속 거주이유**	소계	108(100.0)
	내 집이어서	61(56.5)
	교통이 편리해서	30(27.8)
	경제적인 이유로	29(26.9)
	자연환경이 좋아서	24(22.2)
	주변에 여가보낼 곳 많아서	14(13.0)
	종교시설이 가까워서	11(10.2)
	자녀집과 가까워서	10(9.3)
	기타	8(7.4)
	소계	108(100.0)
하루 중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평균:19.8시간)	소계	104(100.0)
	10시간 미만	4(3.8)
	10시간-15시간 미만	18(17.3)
	15시간-20시간 미만	27(26.0)
	20시간-21시간	26(25.0)
	22시간-23시간	15(14.4)
부엌의 공간구성형태	24시간	13(12.5)
	DK형(부엌·식당 통합형)	95(98.9)
	D+K형(부엌·식당 분리형)	1(1.1)
소계	96(100.0)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건평,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분양면적으로 조사하였음.

**복수응답 조사대상 주택이 주로 30평 미만의 소규모가 많고 40평 이상 주택이라도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 독립된 식당이 계획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주택에 거주한 평균 기간은 약 19.9년이었고 30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31.8%로 나타나 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당히 긴 편임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가 하루 중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9.8시간이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절반인 51.9%가 하루 중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을 위하여 이들의 생활과

요구에 맞도록 주택을 계획해 줄 필요성과 중요성이 큼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88.9%는 앞으로도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내 집이어서'(56.5%)가 가장 많았다.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앞으로도 내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aging in place)가 강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부엌의 공간구성형태를 보면 부엌과 식당이 연결된 형태인 DK형, 즉 부엌과 식당이 특별한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98.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표 4>에서 설명하였듯이

2. 현 주택에서의 노후생활 및 불편 대처방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의 향후 노후 생활에 대한 생각과 불편대처방안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향후 노후생활에 '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5%, 공동주택 거주자의 65.6%인 반면에 단독주택거주자는 대다수(69.8%)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현재 주택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에서는 공동주택거주자(47.6%)에 비해 단독주택거주자(53.3%)가 '불편하지만 참고 살겠다'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던 점을 볼 때, 단독주택거주자가 주택이 살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에도 계속 참고 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이들 주택의 불편함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단독주택거주자가 현재 주택에서 향후 노후 생활이 '불편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공동주택 거주자는 '편할 것'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 현재 주택 유형에 따라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참조).

3. 현 주택의 개조 의사 및 개조 이유

현재 주택을 개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표 7 참조), 가장 주된 이유는 '불편하지만 주택 개조를 할

표 5. 현 주택에서의 미래 노후생활 불편 예상 및 대처방안

항 목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빈도(%)	빈도(%)	빈도(%)
현주택에서 향후 노후생활 예상	매우 편할 것	5(4.8)	2(4.7)	3(4.9)
	편할 것	48(45.7)	11(25.6)	37(60.7)
	불편할 것	36(34.3)	18(41.9)	17(27.9)
	매우 불편할 것	16(15.2)	12(27.9)	4(6.3)
	소 계	105(100)	43(100)	61(100)
현주택 불편사항 향후 대처방안*	참고 산다	27(51.9)	16(53.3)	10(47.6)
	주택을 개조해서 산다	13(25.0)	8(26.7)	5(23.8)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간다	10(19.2)	5(16.7)	5(23.8)
	노인시설, 노인전문 주택에 간다	1(1.9)	0(0)	1(4.8)
	기타	1(1.9)	1(3.3)	0(0)
	소 계	52(100)	30(100)	21(100)

*노후생활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n=52)만 응답함

표 6. 주택유형에 따른 미래 노후생활 불편 예상 및 대처방안 차이

항 목	주 택 유 형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현 주택에서 향후 노후생활	매우편할 것	2(4.7)	3(4.9)	5(4.8)	$\chi^2 = 15.67^{**}$
	편할 것	11(25.6)	37(60.7)	48(46.2)	
불편할 것	18(41.9)	17(27.9)	35(33.7)		
매우불편할것	12(27.9)	4(6.6)	16(15.4)		
소 계	43(100.0)	61(100)	104(100.0)		

**P < .01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49.1%)이었다. 특히, 주택유형에 따라 개조를 하지 않은 이유에 유의미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독주택거주자는 경제적인 이유가 공동주택거주자는 불편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높아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9 참조). 향후 현 주택을 개조할 의사에서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거의 과반수 정도(45.9%)가 노후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개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표 8 참조). 그러나 앞으로 개조의사가 없는 나머지 과반수의 주택개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보면, 단독주택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28.6%)이고 공동주택거주자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33.3%)로 그 주된 이유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단독주택거주자는 공동주택 거주자에 비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 없이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으며 개조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고 개조를 번거롭게 여기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불편한 주

표 7. 현재 주택을 개조하지 않은 이유

항 목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빈도(%)	빈도(%)	빈도(%)	
현 주택 개조하지 않은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다	26(49.1)	16(64.0)	10(35.7)
	불편하지 않다	18(34.0)	4(16.0)	14(50.0)
	과정이 번거롭다	3(5.7)	3(12.0)	3(10.7)
	개조비용을 쓰기 싫다	2(3.8)	1(4.0)	1(3.6)
	기타	4(7.5)	1(4.0)	3(10.7)
	소 계	53(100.0)	25(100.0)	28(100.0)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노후에 대비하여 개조한 적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음

표 8. 향후 주택 개조 의사 및 개조의사가 없는 이유

항 목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빈도(%)	빈도(%)	빈도(%)	
향후주택 개조 의사	예	45(45.9)	20(48.8)	24(42.9)
	아니오	53(54.1)	21(51.2)	32(57.1)
	소 계	98(100.0)	41(100.0)	56(100.0)
향후 주택 개조 의사 없는 이유*	참고 살 만하다	13(25.5)	5(23.8)	8(26.7)
	번거롭다	9(17.6)	6(28.6)	3(10.0)
	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1(2.0)	0(0.0)	1(3.3)
	개조비용을 쓰기 싫다	14(27.5)	4(19.0)	10(33.3)
	기타	14(27.5)	6(28.6)	8(26.7)
	소 계	51(100.0)	21(100.0)	30(100.0)

*향후 개조 의사가 없는 경우(n=53)만 응답함

표 9. 주택유형에 따른 현 주택의 개조 의사 및 개조 이유 차이

항 목	주 택 유 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계	
현 주택 개조하지 않은 이유	경제적 여유 없다	4(16.0)	14(50.0)	18(34.0)
	불편하지 않다	16(64.0)	10(35.7)	26(49.1)
	과정이 번거롭다	3(13.0)	0(0.0)	3(6.1)
	개조비용 쓰기 싫다	1(4.0)	1(3.6)	2(3.8)
	기타	1(4.0)	3(10.7)	4(7.5)
	소 계	25(100.0)	28(100.0)	53(100.0)

$\chi^2 = 10.81^*$

**P < .05

거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는 단독주택 거주 노인에게 주택개조를 통해 노후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지원과 주택개조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가 필요하겠다.

4. 부엌의 개조 여부, 만족도 및 개조 요구

조사대상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엌공간 개조 여부와 이에 따른 개조 후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조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6개 유형(단차, 출입문, 마감처리, 설비, 수납 및 작업대, 생활용품)의 20개 개조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조사대상주택에서 부엌의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빈도가 높지 않았다. 조사대상 노인단독가구의 부엌공간에서 주로 개조가 많이 행해진 항목들은 설비유형에 해당하는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62.0%), ‘온수시설설치’(58.3%), ‘보조난방기구설치’(30.6%)이었다. 이 밖에도 부엌작업대의 윗벽에 보조선반 설치(21.3%), 출

입문에서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19.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조가 행해졌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가사작업의 편리성과 적정 온도확보를 통한 실내 환경의 쾌적성 증대, 그리고 자주 쓰는 가사용품에 대한 접근성 및 안전성의 확보와 관련된 개조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부엌공간에서 각 개조 항목별로 개조를 한 후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개조실행빈도가 높았던 항목 중에서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3.82점), ‘온수시설설치’(3.80점), ‘보조난방기구 설치’(3.31점)는 개조 후 만족도 역시 높아 개조에 대한 효과가 높은 항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조가 많이 이루어졌던 항목이라도 개조 후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개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개조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개조 후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이 아닌 가 추측된다. 반면에 비록 개조실행빈도는 낮아도 개조 후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스위치나 조절 장치의 높이조절’, ‘작업대와 대비되는 색의 바닥갈개 사용’)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러한 개조항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조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각 개조항목별로 향후 개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60.2%),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41.7%),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설치’(41.7%), ‘수도꼭지에 자동온도 조절장치 설치’(36.1%), ‘실내의 단차제거’(35.2%), ‘부엌작업대의 발디딤판 사용(27.8%)’, ‘부엌작업대의 높이 조절’(27.8%) 등에서 개조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항목들은 주로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것이 많아 노인들은 개조를 통해

표 10. 현재 부엌의 개조여부와 개조 후 만족도 및 향후 부엌 개조요구

N=108

개조유형	항목	개조여부*	개조 후 만족도	향후 개조 요구
		빈도(%)	평균**	빈도(%)
단차	실내의 단차제거	8(7.4)	2.93	38(35.2)
	부엌작업대 밑에 발디딤판 사용	11(10.2)	2.29	30(27.8)
출입문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	21(19.4)	3.06	45(41.7)
마감처리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	12(11.1)	2.50	45(41.7)
	벽, 벽장, 가구를 대비되는 색으로 바꿈	7(6.5)	3.00	19(17.6)
	작업대와 대비되는 색의 바닥갈개 사용	11(10.2)	3.18	17(15.7)
설비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조절	8(7.4)	3.33	21(19.4)
	화재/가스경보 장치 설치	14(13.0)	2.60	65(60.2)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	67(62.0)	3.82	11(10.2)
	수도꼭지에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6(5.6)	3.00	39(36.1)
	온수시설 설치	63(58.3)	3.80	4(3.7)
	보조 난방기구 설치	33(30.6)	3.31	17(15.7)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판(램프스위치)사용	6(5.6)	3.00	20(18.5)
수납 및 작업대	부엌의 하부수납장이나 수납장문 제거	0(0.0)	0	3(2.8)
	부엌작업대 높이조절	11(10.2)	3.08	30(27.8)
	부엌작업대의 윗벽에 보조선반 설치	23(21.3)	3.00	7(6.5)
생활용품	물건나르기 편한 바퀴달린 웨건 사용	4(3.7)	3.00	10(9.3)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가구 사용	10(9.3)	2.77	9(8.3)
	손잡이가 편한 서랍장사용	11(10.2)	3.00	20(18.5)
	바퀴달린 작업용 의자 마련(부엌,현관 등)	18(16.7)	2.50	11(10.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부엌공간에서 해당항목을 개조를 한 경우를 정리한 것임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용에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 노인단독가구에서 부엌개조가 빈번히 이루어졌던 항목이 주로 설비에 대한 개조이었다면, 향후 개조요구가 높은 항목은 설비, 단차, 출입문, 마감처리, 수납 및 작업대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노인들이 원하는 개조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부엌의 물리적 환경실태

부엌의 물리적 환경 실태는 단차, 출입문, 마감처리, 설비, 수납 및 작업대, 생활용품, 식탁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세부항목에 대해 실측 및 관찰조사를 한 결과를 주택유형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로 정리하였다(표 11 참조).

1) 단차

부엌공간은 주택유형이나 공간배치에 따라 인접공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엌공간이 인접공간과 단차가 있는 경우는 35.6%이었고 단차의 범위는 10-450 mm이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공간인 다용도실과의 단차가 30 mm가 넘는 경우가 36.4%가 있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식당, 다용도실, 거실, 마당 등의 인접공간과의 단차가 있는 경우가 82.4%로 조사되어 단독주택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노인들이 보행 시 단차에 의해 걸려 넘어지거나 낙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높으며 향후 보조 보행기구 사용 시 특히 휠체어 사용 시 자력으로 부엌을 출입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출입문

부엌에 인접공간과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전체 주택의 29.9%, 단독주택은 51.4%, 공동주택은 18.6%이었다. 출입문의 종류는 주로 미닫이문이었으며 손잡이 종류는 주로 고리형 손잡이(전체: 27.8%, 단독주택: 45.5%) 또는 홈형 손잡이(전체: 33.3%, 단독주택: 27.3%)이었다. 이러한 고리형과 홈형의 손잡이는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이었다. 고리형은 레버형보다 손으로 잡는 힘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둥근 손잡이나 홈형 손잡이에 비해서 잡는 힘이 약화되거나 관절염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을 열고 닫기에 가장 편리한 레버형 손잡이의 사용은 단독주택에서는 한 개의 사례도 없어 단독주택의 문 손잡이의 교체가 시급한 개조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출입문의 손잡이가 휠체어 사용 시에도 바람직한 높이인 800-900 mm 이하에 설치된 경우는 전체주택의 반 정도(55.6%)이었고 이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는 30.1%로 선 자세에서 문을 여닫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향후 보조 보행기구를 사용 시에는 출입문의 개폐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마감처리

부엌의 바닥, 벽, 천장의 마감처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마감재는 천장이나 벽은 주로 벽지마감이 많았고, 바닥은 PVC류의 비닐 장판이나 우드륨이 많았

나 타일이나 시멘트몰탈 마감인 경우도 있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이 바닥, 벽, 천장의 마감처리 상태가 좀 더 불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마감처리의 불량은 미관적인 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측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4) 설비

부엌의 설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명은 대부분이(전체: 80.0%, 단독주택: 86.5%) 직접조명이었다. 조명 스위치의 높이는 권장기준인 800-1200 mm 이하에 설치된 경우가 전체주택의 과반수 정도(55.8%)이었고 이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가 43.2%로 밝혀짐으로써 부엌의 조명 스위치의 높이는 기준치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콘센트가 부엌에 없는 경우는 적었으며 콘센트의 설치 높이에 있어서는 권장기준치(400-1200 mm 이하)에 있는 경우가 64.3%이었고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1200 mm 초과)도 16.7%나 되었다. 부엌에서 전기사용을 위한 연장코드의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26.6%) 바닥에 늘어져 있는 연장코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조 보행기구 이동 시 방해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으나 여전히 1/4 정도의 노인은 이로 인한 위험성을 안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설비들, 즉 화재경보기, 가스감지기, 외부와의 비상연락장치 등의 설치는 극히 미비하였다. 그러나 앞서 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인단독가구에 주택개조 요구에서 위급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장치나 화재/가스경보장치의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노인단독가구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엌의 바닥난방 상태는 바닥난방이 되는 경우가 전체 주택의 64.8%이고 안 되는 경우가 35.2%이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부엌바닥에 난방이 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엌의 바닥난방이 겨울철에만 한정되어 필요하고 노인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부엌작업이나 식사 시에 실내 온도조절이 잘 되지 않는 점은 노인의 건강과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바닥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바닥난방을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앞서 면접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개조빈도가 높고 이에 따른 개조 후 만족도도 높았던 보조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개수대에 설치된 수전은 냉온수일체형(84.7%)인 경우가 많았고 수전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86.4%)이 가장 많았다.

5) 수납 및 부엌작업대

부엌의 전반적인 수납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으나(75.2%)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리정돈이 안된 불량한 상태도 24.7%나 되었다. 부엌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공간으로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설명하였듯이 가구나 물건에 부딪치거나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따라서 부엌은 손이 편안한 자세에서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자주 쓰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이나 선반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부엌의 작업대와 수납장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작업대의 배치를 살펴보면, 일자형이거나(57.8%) ㄱ자형(42.2%) 중의 하나이었다. 이는 조사대상주택이 주로 30평형이하의 주택이 많아 부엌/식당의 크기가 협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업대의 높이는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850 mm 초과)가 전체의 약 1/4 이상(25.7%)이었고 상부 수납장의 경우에도 상부수납장 가장 아랫부분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보면 기준치 이상(1200 mm 초과)인 경우가 대다수(84.4%)로 상부수납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업대의 높이나 상부수납장의 높이가 높아 보조발판을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10.2% 정도가 있었다. 이는 노인의 신장(여성노인 응답자의 평균 신장: 151.1 cm이었음)에 비해 작업대가 높은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앞서 정리한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부엌작업대 윗벽에 보조 선반을 설치하여 주로 사용하는 식기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향후 부엌작업대의 높이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던 점과 연결되어 해석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작업대의 깊이는 기준치보다 좁은 경우(600 mm 이하)가 40.4%이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엌 작업대의 깊이가 600 mm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91.9%)이어서 단독주택의 부엌작업대의 깊이가 좁은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리가 아플 경우에 작업대 앞의 의자에 앉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아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주택의 24.8%, 단독주택의 12.8%에 그쳤다.

가열대는 가열기구로 주로 가스렌지가 사용되고 있었고 쿡탑의 높이도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850 mm 초과)가 전체주택의 반 정도(53.7%)이어서 가열대 사용 시에 음식물 조리 상황의 확인에 불편함이 있고 또한 화상의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스밸브는 휠체어 사용 시에도 접근이 가능한 높이인 1200 mm 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주택의 과반수 이상(54.9%)이어서 향후 보행이 곤란하여 휠체어나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가스밸브 조작이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가열대에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주택의 64.8%이었는데 단독주택은 이보다도 설치율이 낮아서 51.3%에 그쳤다. 후드가 있다고 해도 기존의 기성제품의 대다수가 후드 자체에 조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높이(1200 mm 이하)에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전체: 2.9%, 단독주택: 0%), 손을 완전히 쭉 뻗어야 닿을 수 있는 높은 위치(1200-1600 mm 이하)에 조작판이 있는 경우는 64.8%이었고 쉽게 접근이 어려운 상황(1600 mm 초과)인 경우도 1/3 이상(35.7%)이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로 가열대 후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률은 저조할 수밖에



그림 1. 키에 비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부수납장



그림 2. 바닥마감과 상부수납장도 없이 매우 열악한 부엌

에 없어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6) 생활용품과 식탁

전자레인지의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가족수가 적은 노인가구에서는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편리한 생활용품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주택의 부엌에서는 전체주택의 60.2%만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김치냉장고도 유용한 생활용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용률은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었다.

식사공간에서 입식식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주택이 과반수 정도(49.5%)이었고 단독주택은 이보다 낮은 43.6%이었다. 앞서 <표 4>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거의 대다수의 조사 주택의 부엌은 식사공간과 일체화 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음을 볼 때, 식탁을 갖추고 있는 과반수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상을 이용하여 주로 부엌에서 식사를 하다가 추운계절에는 다른 공간(거실/침실 등)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이었다. 이는 향후 거주자가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관절염 등으로 인해 좌식으로 앉아 식사하는 것이나 밥상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더 힘이 들 것임을 고려해볼 때 식탁을 사용한 식사공간의 부재는 안전하고 자립적인 식생활에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공간실태를 면접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가 현재 주택에서의 향후 노후생활은 불편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공동주택거주자에 비해 높았으나 이에 비해 대처방안은 '그냥 참고 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많이 갖고 있었다. 주택개조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여력부족과 개조로 인한 번거로움이 부담스러워서 노화에 대비한 개조 실행에 대해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단독

주택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조를 지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2) 노인단독가구가 부엌공간에서 가장 많이 개조하고 개조 후 만족도도 높았던 항목은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수도꼭지’와 ‘온수시설 설치’이었다. 또한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 조절’, ‘작업대와 대비되는 색의 바닥갈개 사용’, ‘부엌작업대의 높이조절’ 등은 현재 개조빈도는 높지 않

으나 개조 후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는 현재 시행빈도는 낮았으나 향후 개조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만족도와 요구가 높았던 항목들에 대한 개조를 권장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개조 후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 자신의 신체적, 경제적조건,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개조가 적절히 시행되도록 도와주는 개조정보제공, 개조관련물품 판매, 개조상담 창구

표 11. 부엌의 물리적 환경실태

유형	항목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빈도(%)	빈도(%)	빈도(%)
단차	인접공간과의 단 (n = 90)	유	32(35.6)	17(43.6)	15(29.4)
		무	58(64.4)	22(56.4)	36(70.5)
	단차 높이* (n = 28)	30 mm 이하	11(39.3)	4(17.6)	7(63.6)
		30 mm 초과	17(60.7)	13(82.4)	4(36.4)
출입문	유무 (n = 107)	유	32(29.9)	19(51.4)	13(18.6)
		무	75(70.1)	18(48.6)	57(81.4)
	문의 종류** (n = 30)	미닫이문	16(53.3)	8(44.4)	8(72.7)
		미세기문	9(30.0)	6(33.3)	3(27.2)
		여닫이문	5(16.7)	4(22.3)	1(9.0)
	손잡이 종류** (n = 17)	둥근 손잡이	4(22.2)	2(18.2)	2(28.6)
		레버형 손잡이	2(11.1)	0(0.0)	2(28.6)
		고리형 손잡이	5(27.8)	5(45.5)	0(0.0)
		흡형 손잡이	6(33.3)	3(27.3)	3(42.9)
	손잡이 높이** (n = 21)	800 mm 미만	3(14.3)	3(25.0)	0(0.0)
800-900 mm 이하		10(55.6)	5(41.7)	5(55.6)	
900 mm 초과		8(30.1)	4(33.3)	4(44.4)	
마감처리	바닥 (n = 100)	양호	86(86.0)	29(82.9)	57(87.7)
		불량	14(14.0)	6(17.1)	8(12.3)
	벽 (n = 100)	양호	82(82.0)	27(77.1)	55(84.6)
		불량	18(18.0)	8(22.9)	10(15.4)
	천장 (n = 96)	양호	79(82.3)	28(80.0)	51(83.6)
		불량	17(17.7)	7(20.0)	10(16.4)
설비	조명방법 (n = 100)	직접조명	80(80.0)	35(86.5)	45(71.4)
		반직접조명	9(9.0)	0(0.0)	9(14.3)
		반간접조명	11(11.0)	2(13.5)	9(14.3)
	스위치 높이 (n = 95)	800 mm 미만	1(1.0)	1(2.8)	0(0.0)
		800-1200 mm 이하	53(55.8)	19(54.3)	34(56.7)
		1200 mm 초과	41(43.2)	15(42.9)	26(43.3)
	콘센 (n = 89)	유	84(94.4)	39(100.0)	45(90.0)
		무	5(5.6)	0(0.0)	5(10.0)
	콘센트 높이 (n = 84)	400 mm 미만	16(19.0)	4(11.8)	12(24.0)
		400-1200 mm 이하	54(64.3)	24(70.6)	30(60.0)
		1200 mm 초과	14(16.7)	6(17.6)	8(16.0)
	연장코드 사용 (n = 108)	사용함	28(25.9)	9(23.7)	19(27.1)
		사용안함	80(74.1)	29(76.3)	51(72.9)
	화재경보기 (n = 108)	유	11(10.2)	1(2.6)	10(14.3)
		무	97(89.8)	37(97.4)	60(85.7)
가스감지기 (n = 108)	유	8(7.4)	1(2.6)	7(10.1)	
	무	100(92.6)	38(97.4)	62(89.9)	
비상연락장치 (n = 108)	유	2(1.9)	1(2.6)	1(1.4)	
	무	106(98.1)	38(97.4)	68(98.6)	
바닥 난방 (n = 108)	유	70(64.8)	0(0.0)	70(100.0)	
	무	38(35.2)	38(100.0)	0(0.0)	
에어컨 (n = 108)	유	23(21.3)	9(23.1)	14(20.3)	
	무	85(78.7)	30(76.9)	55(79.7)	
수전 손잡이 종류 (n = 81)	레버형 손잡이	70(86.4)	20(77.0)	50(90.9)	
	나사형 손잡이	11(13.6)	6(23.0)	5(9.1)	

표 11. 부엌의 물리적 환경실태(계속)

유형	항목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빈도(%)	빈도(%)	빈도(%)
수납 및 작업대	부엌내 수납상황 (n = 105)	양호	79(75.2)	25(67.6)	54(79.4)
		불량	26(24.7)	12(32.4)	14(20.6)
	작업대 배치유형 (n = 102)	일자형	59(57.8)	19(51.4)	40(61.5)
		ㄱ자형	43(42.2)	18(48.6)	25(38.5)
		ㄷ자형	0(0.0)	0(0.0)	0(0.0)
		아일랜드형	0(0.0)	0(0.0)	0(0.0)
	작업대 높이 (n = 103)	750 mm 미만	2(1.9)	0(0.0)	2(2.9)
		750-850 mm 이하	76(72.4)	32(86.5)	44(64.7)
		850 mm 초과		27(25.7)5(13.5)	22(32.4)
	작업대 깊이 (n = 104)	600 mm 이하	42(40.4)	34(91.9)	8(11.9)
		600 mm 초과	62(59.6)	3(8.1)	59(88.1)
	작업대 아래 무릎 공간 (n = 108)	유	26(24.1)	5(12.8)	21(30.4)
		무	82(75.9)	34(87.2)	48(69.6)
	보조 작업대 (n = 108)	유	10(9.3)	3(7.7)	7(10.1)
		무	98(90.7)	36(92.3)	62(89.9)
	보조발판 사용 (n = 108)	사용함	11(10.2)	3(7.7)	8(11.6)
		사용안함	97(89.8)	36(92.3)	61(88.4)
	상부수납장 하부 높이 (n = 96)	1100 mm 미만	6(6.2)	1(2.9)	5(8.1)
		1100-1200 mm이하	9(9.4)	3(8.8)	6(9.7)
		1200 mm 초과	81(84.4)	30(88.2)	51(82.3)
	상부수납장 손잡이높이 (n = 97)	1100 mm 미만	9(9.3)	1(2.9)	8(12.7)
		1100-1200mm이하	5(5.1)	4(11.8)	1(1.6)
		1200 mm 초과	83(85.6)	29(85.3)	54(85.7)
	가열대 종류 (n = 103)	가스렌지	87(84.5)	32(84.2)	55(84.6)
		오븐 일체형	12(11.7)	5(13.2)	7(10.8)
		빌트인	4(3.8)	1(2.6)	3(4.6)
	쿡탑(가열대) 높이 (n = 95)	750 mm 미만	1(1.0)	1(3.3)	0(0.0)
		750-850 mm 이하	43(45.3)	13(41.9)	30(46.9)
		850 mm 초과	51(53.7)	17(54.8)	34(53.1)
	조작버튼높이 (n = 94)	750 mm 미만	16(17.0)	5(16.1)	11(17.5)
750-850 mm 이하		67(71.3)	24(77.4)	43(68.3)	
850 mm 초과		11(11.7)	2(6.5)	9(14.3)	
가스안전밸브 높이 (n = 102)	1200 mm 이하	46(45.1)	17(44.7)	29(45.3)	
	1200 mm 초과	56(54.9)	21(55.3)	35(54.7)	
배기후드 (n = 108)	유	70(64.8)	20(51.3)	50(74.5)	
	무	38(35.2)	19(48.7)	19(27.5)	
배기후드 조작판 높이 (n = 70)	1200 mm 미만	2(2.9)	0(0.0)	2(3.9)	
	1200-1600 mm 이하	43(61.4)	15(78.9)	28(54.9)	
	1600 mm 초과	25(35.7)	4(21.1)	21(41.2)	
냉온수조절 방식 (n = 85)	냉온수 일체형	72(84.7)	17(74.0)	55(88.7)	
	냉온수 별도형	11(12.9)	5(21.7)	6(9.7)	
	기타	2(2.4)	1(4.3)	1(1.6)	
생활지원용품	전자레인지 (n = 108)	유	65(60.2)	22(56.4)	43(62.3)
		무	43(39.8)	17(43.6)	26(37.7)
김치냉장고 (n = 108)	유	45(41.7)	16(41.0)	29(42.0)	
	무	63(58.3)	23(59.0)	40(58.0)	
식탁	유무 (n = 108)	유	54(50.0)	17(44.7)	37(52.9)
		무	54(50.0)	21(55.3)	33(47.1)
	식탁 높이 (n = 54)	650 mm 미만	1(1.8)	0(0.0)	1(2.7)
		650-750 mm 이하	46(85.2)	15(88.2)	31(83.8)
		750 mm 초과	7(13.0)	2(11.8)	5(13.5)
	식탁의자 수 (n = 51)	1-2개	12(23.5)	5(31.3)	7(20.0)
		3-4개	30(58.8)	9(56.3)	21(60.0)
		5개 이상	9(17.6)	2(12.4)	7(20.0)
	식탁의자 좌면높이 (n = 49)	400 mm 미만	0(0.0)	0(0.0)	0(0.0)
		400-450 mm 이하	37(75.5)	12(80.0)	25(73.5)
450 mm 초과		12(24.5)	3(20.0)	9(26.5)	

*인접공간과의 단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문과 손잡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신설 및 상담사 양성 개조전문업체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실측조사를 통하여 부엌공간의 물리적 환경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들은 부엌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엌의 구조적 혹은 공간상 문제점들로 인해 가사생활에 불편함과 제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앞으로도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aging in place) 하기 위해서는 부엌공간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엌의 개조가 시급하다.

2) 실내의 단차제거는 면접조사에서도 개조 요구도가 높았던 항목이었는데 실측조사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아(특히 단독주택) 개조가 필요한 상황임이 파악되었다. 실내공간에서의 단차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게 하므로 단차가 30 mm 이하인 경우에는 문지방을 없애는 방법으로 개조하고, 단차가 30 m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단의 높이와 인접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 발판을 설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개조방법을 택할 수 있다.

3) 부엌 출입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잡이 형태이었다. 문손잡이는 손의 힘이 약해지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문을 열고 닫기가 쉬운 레버형 손잡이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형태로 문손잡이를 교체하는 것은 개조에 필수적인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에서 '화재/가스경보장치 설치'는 극히 미비했으나 이 항목은 면접조사에서는 가장 향후 요구도가 높았던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를 전화망이나 전력선을 이용하여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5) 노후생활에서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식생활패턴이 더 편리하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좌식생활 패턴인 바닥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리나 식사시에 의자에 앉아서 부엌행위 시에 전반적으로 입식생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각종 스위치와 콘센트의 형태, 높이, 위치, 개수 그리고 가스밸브나 부엌의 배기 후드 스위치의 높이는 노인 생활의 자립성, 안전성, 편리성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이나 조명등의 사용이 많은 부엌에는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스위치와 콘센트를 설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조사항이다. 특히 스위치는 손놀림이 미숙하거나 어두울 때도 쉽게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조작판이 넓고 미 작동 시에 불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램프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콘센트를 추가로 만들거나 연장코드를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연장코드의 안전 설치가 보다 바람직하다.

7) 부엌의 바닥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였다. 이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노인들의 건강문제 발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사를 할 때 큰 불편을 준다. 노인가구의 주택 개조에는 난방설비 또는 보조 난방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8) 노후에는 노인의 습성 상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점점 수납할 물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바닥이나 작업대위, 전라레인지나 냉장고 위 등에 쌓아놓은 부엌용품들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통행에도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수납장의 높이조절이나 내부 구성에 대한 개조가 필요하다. 부엌가구의 손잡이도 사용이 불편한 형태가 주로 많았으므로 사용이 용이한 레버형 손잡이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상부 수납장의 높이는 노인들의 키에 비해 대다수의 부엌에서 높게 설치되어 있어, 작업대와 상부수납장 사이에 추가적으로 선반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가적인 수납용 선반의 설치와 더불어 최대한 상부수납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차후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할 때에 대비하여 적정한 하부수납장의 높이나 휠체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농촌거주노인의 부엌공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부엌이외에 욕실과 같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의 개조상태 및 요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단독가구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2세대, 3세대를 형성하여 살고 있는 노인가구를 대상으로도 개조상태 및 요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권오정(1997),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pp.1-17.
2. 권오정 · 최재순 · 하해화(2001), 지체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주택 개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11), pp.19-28.
3. 김대년(1997), 노인주거 개발을 위한 노인의 주거규범에 관한 연구, 응용과학연구.
4. 김태일(1998), 고흥자 주택의 설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2), pp.23-34.
5. 김현지(2006), 노인전용 부엌·욕실공간의 계획방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5),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자료.
7. 주서령 · 이지예 · 김민경(2005. 10), 한국노인의 부엌 및 욕실 설비에 대한 적정 치수 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2), pp.231-232.
8. 통계청(2002), 한국주택학회,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자료집.
9.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0. 통계청(2004), 고흥자통계.

(接受: 2006. 11. 24)